45 과학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 과학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지만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증 가능성은 제안된 명제나 가설이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해 반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포퍼는 반증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포퍼가 문제 삼은 것은' 과학인 척하는 가짜 과학이 허세를 부리고 과학적이라고 증표를 내밀면서 위세를 부리려는 풍조였다.

• 포퍼가 지적하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의 요건은 우리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채근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반론의 가능성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며,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성을 가진 가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말을 이야기의 앞부분에 수식어처럼 붙여 주장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호소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론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포퍼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태도야말로 과학의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과학적인 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